『혼인잔치의 비유』,
안드레이 미로노프, 2014.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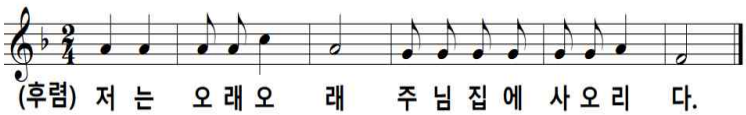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이사야 25,6-10ㄱ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필리피 말씀 4,12-14.19-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 | 마태오 22,1-14

성가 | 입당성가 [65]
예물준비 [496]
영 성 체 [271]
파견성가 [270]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정수 베드로	김민경 소화데레사
이정진 안토니오	이영애 레지나
전장근	김영빈 루시아
이용기 요셉, 이상옥 소화데레사	이안나

생미사	봉헌
예비신자 교리반 모든 참석자	이지훈, 이태주,
양정윤 젬마	이신혜 대데레사
김은성 베드로	익명
김은성 베드로	김데레사 가족
손영소 스테파노, 손명희 엘리사벳 가정	익명
김택영 알버트, 김혜숙 마리아 가정	익명
김해광 루카 건강	이희철 아오스딩
이정희 마리아, 김혜미 레오나	박신영 안나
박기목, 민완준 영육건강	신윤길
김승현 마리아, 조성윤 바실리오	복사단
한서희 데레사 영명축일	박올리바
여동권루크 김승연 안나 생일	이영애 레지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미사중 앞으로 나올 때 2줄 서기

교우분들은 예물봉헌과 영성체시 2줄로 서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 13,2

▶레지오 전단원 교육

오늘(10/15) 1:20pm, 아래성당, Fr. 가롤로

▶예비신자 교리반

세례성사: 2024년 3월 30일(부활성야)
교리기간: 현재 ~ 2024년 3월 30일
요일및 장소: 매주일 오전 10:50~12:10/교육관 3A
신청: 사무실 347.834.5784
*이웃, 친구, 지인을 은총의 세례성사 길로 초대해 주세요~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08:50부터 묵주기도

10/15희망의모후Pr. 10./22우리즐거움의원천Pr. 10/29희망의모후Pr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

로사리오 성월을 맞이하여 꾸리아에서 십만송이 묵주기도 바치기(10만단)를 진행하오니, 많은 교우분들이 동참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10/01/2023~ 09/30/2024

***10/08/2023 현재: 1,560단**

▶한가위 뉴튼 수도원행 버스티켓 반환 $15 (연령회)

▶견진성사 교리반

견진성사: 2024년 3월 30일(부활성야)
첫만남: 11/5(주일) 11시, 요일: 매주일 오전 11시
대 상: 세례후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 교우분들
신청: 사무실 347.834.5784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 신앙인을 새롭게 태어나고 견진성사를 통해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호를 받아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주일반	오늘(10/15) 12:30 3A	Sr.효주
목요반	매주 목, 10am-11:20am 3A	

▶성찬봉사자를 위한 전례 실무 교육

일시: 11/5(일) 11시, 장소: 교육관, Sr. 효주

▶2023년 청년성서모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마감: 10/29(주일) 장소: 다미안홀
대표봉사자: 김진섭 야고보 201-912-7577

▶봉성체 신청

교우분들께서는 주변에 '몸이 편찮으신 분' '연로하셔서 미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봉성체를 권유해 주셔요~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신청:사무실 347-834-5784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유아세례가 있으니,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 제774조 2항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비신자분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단기 출석교육'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교리' 가능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길 그리고 시간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ㅐ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0/15	정유진 콘솔시아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이영혜 안젤라	양지수글라라 김승현마리아
10/22	장혜윤 크리스티나	강호영 대건안드레압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김영숙 카타리나	양지수글라라 한서희데레사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마태 6, 20)

농부가 황금 들녘을 바라봅니다. 1년 동안 애쓴 결실이 아름답습니다.
창고에 가득히 쌓이는 곡식들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노고를 잊습니다.
보람되고 기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에게 물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상의 곳간이냐? 하늘나라 보물창고냐?"
한 해의 결실을 맞이하는 황금 들녘에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일구어낸 농부들의 땀과 노력을 기억합니다.